

애물단지 영광 해수온천랜드 활성화 길 찾았다

사업성 부족·운영비 과다에 운영자 못찾다 3년만에 매각
광주업체 인수...시설 리모델링 숙박시설 조성 관광자원화

사업성 부족과 과도한 운영비 문제로 운영자를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영광 해수온천랜드가 3년 만에 주인을 찾아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 백수읍 해수온천랜드가 광주의 부동산 업체인 '노을이백리길'에 매각됐다.

지난 2월 매수 의사를 밝히고 최근 잔금을 치러 매각 작업이 완료됐다.

이 업체는 온천랜드를 리모델링하고 숙박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수온천랜드는 2004년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73억원을 투입해 6년 만인 2010년 2월 개장했다.

영광군은 1~3층에 해수탕을 만들고 해수풀장, 특산물판매장, 수변공원, 주차장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놔다.

하지만 부실한 계획으로 3층 해수탕과 건물 뒤편에 만들어진 해수풀장, 특산물판매장은 사용조차 못했고 준공 이후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

수려한 경관과 노을을 자랑하는 백수해

안도로에 있어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운영 적자, 보수비 등으로 수익원을 쏟아붓는 애물단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매각 금액도 98억원에서

68억원까지 떨어졌고 2017년 4월부터 운영도 중단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수기업이 성공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사업성 부족과 과도한 운영비 문제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영광 해수온천랜드가 3년만에 새 주인을 맞아 활성화의 길을 모색한다. <영광군 제공>

영광농원, 공공비축미곡 검사
대형 포대 벼 검사 확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소장 강희채·이하 영광 농관원)는 2019년 공공비축미곡 검사 시 대형 포대 벼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공공비축미곡 검사는 소형포대(40kg)와 대형포대(800kg) 두 종류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형포대의 경우 창고 입고인부 부족으로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출하능가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농업인이 대형포대 출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포대 검사는 농업인구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농가의 편익 증진 및 검사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국정감사 신뢰도 향상 및 포장제 구입비와 작업비용, 창고 입출고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형포대보다 이점이 있다.

영광 농관원 관계자는 "대형포대매입 확대와 품종검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품종검정제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영광군, 농협)과의 협업강화와 농가 기술지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함평군 '나비마을 만들기' 국비 20억 확보

주민 주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선정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서 함평군의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예산 생활밀접사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대규모 SOC사업 대신 지역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를 융·복합하는 주민주도방식으로 추진, 운영된다.

함평군은 올해 지역특화지원인 나비·국화를 활용한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 단계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은 기존 유리온실을 활용한 국화분재 재배, 나비사육 등 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함평천 수변 탐방로와 불가시나무 탐방로 조성(천연기념물 110호) 등 경관휴식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 신청 당시 전문가 자문 및 지역

주민 의견을 대다수 반영한 만큼 기존 함평문화원과 인근 유휴지를 활용해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문화공간 등도 함께 조성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20년부터 추진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체계적 사업계획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것이 이번 선정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이번 공모사업이 지역에 큰 긍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7억원을 들여 나비마을 진입로 확장, 엑스포공원-나비마을 간 하천교량 단절구간 연결 등 사이클로드 연계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함평군 축제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나비축제 등 지역 관광산업 질적 성장·경쟁력 강화

함평군이 15일까지 '함평군 축제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함평군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대표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를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도약시키고 지역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아카데미는 오는 17일부터 총 5주간(주 2회)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초빙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축제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해도림(海島林) 사업과 연계한 지역생태관광 전략, 관광사업제 서비스 경영전략, 지

역역사와 유적·유물을 활용한 홍보전략, 향토음식을 활용한 지역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객 응대서비스 실무 등 문화관광분야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게 된다.

참여 대상은 문화관광해설사, 자원봉사자 등 축제·문화·관광분야에 관심 있는 함평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함평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는 문화관광체육과로 신청하면 된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신안 안좌도~자라도 잇는 '자라대교' 개통

총연장 2km 왕복 2차선 준공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를 잇는 자라대교가 지난 28일 준공식(사진)을 갖고 본격 개통됐다.

자라대교는 지방도 805호선 내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를 잇는 연도교로 총연장 2km, 왕복 2차선 1주탑 콘크리트 사장교로 신설됐다.

2011년 12월 착공해 2018년 8월까지 7년여 동안 총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했으며 차량 운행은 지난해 말부터 이뤄졌다.

46가구 301명의 주민들은 그동안 자라도에서 목포로 가려면 하루 2~3편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최소 1시간 20분 동안 배를 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무안군, '녹색자금 나눔 숲 조성사업' 박차

무안군이 '녹색자금 나눔 숲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군은 삼향읍에 위치한 진성원(사진)과 현경면에 위치한 참사랑요양원 2곳에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나눔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눔 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소규모 '숲'을 조성해 산림환경 기능 증진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 안정 및 심신 치유를 도모하는 산림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무안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 측 관제자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 초 주

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수목 선정,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산림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진흥원 자문위원들로부터 총 세 번에 걸친 기술자문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공사를 선정해 이달 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나눔 숲 조성사업을 통해 진성원에는 편백나무, 대왕참나무 등 수목 25종 3000여주를 심고 산책로와 녹색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유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